

돌아온 엄지성, 광주FC 홈 첫승 이끈다

18일 인천과 K리그1 4라운드 퇴장 징계서 복귀... 공격 선봉 광주 유스 출신 '광탄소년단' 근성과 투지로 연패 탈출 기대

한숨 고른 엄지성이 홈 첫 승에 앞장선다. 프로축구 광주FC가 18일 오후 2시 광주축구전용구장에서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K리그1 2023 4라운드 홈경기를 벌인다. 퇴장 징계에서 돌아온 엄지성이 공격 전면에 서서 연패 탈출과 홈 첫 승을 노린다.

광주는 앞선 라운드 전북현대와의 원정경기에서 0-2패를 기록했다.

'우승후보' 전북을 상대로 밀리지 않는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후반 28분 문선민에게 선취점을 내주면서 팽팽하던 흐름이 깨졌다. 광주는 2분 뒤 다시 실점을 하면서 0-2패를 남겼다.

전북을 당황시키는 경기력을 보여줬지만 득점이 나오지 않으면서 뒷심 싸움에서 밀렸다.

초반 광주의 대진이 만만치 않다. 수원삼성과의 시즌 개막전에서 승리를 거두기는 했지만 FC서울, 전북에 이어 이번에는 인천을 만난다. 전북은 우승을 노리는 '강호'이고 공격적으로 전력을 보강한 서울과 인천은 올 시즌 미디어데이에서 많은 사령탑들이 상위권 후보로 꼽은 다크호스다.

강팀들과의 연전이지만 광주는 악바리 같은 근성으로 승리를 노린다.

이번 인천전 이후 A매치 휴식기를 맞는 만큼 광주는 총력전을 벌이며 '광주다운' 투지로 연패를 끊고 홈 첫 승을 장식하겠다는 각오다.

광주 유스 출신 '광탄소년단'에게 시선이 쏠린다.

앞선 2라운드 서울전 퇴장으로 한 경기 쉬어갔던 엄지성이 그라운드로 돌아온다. 장신 최전방 공격수 허율과 한층 성장한 모습으로 공격에 활기를 불어넣는 이희균, 중원의 살림꾼 정호연까지 유스 출신들이 활약을 이어가고 있다.

특히 엄지성·허율이 올림픽대표, 정호연은 아시안게임 대표에 선발된 만큼 그에 걸맞은 실력을 보여줘야 한다.

광주를 찾는 인천은 점점 강해지고 있다.

지난 시즌 구단 역대 최고 성적인 4위를 기록하면서 창단 첫 AFC 챔피언스리그 진출에도 성공했다. 이명주, 김도혁, 김보섭 등 리그 수준급 선수진에 제르소와 신진호 등을 영입해 강력한 스쿼드를 구축했다.

역대전적에서는 두 팀이 6승 12무 6패로 팽팽히 맞서 있다. 최근 전적을 들여다보면 상황이 다르다.

광주는 최근 맞대결이었던 2021시즌 인천에 2승 1무 1패를 기록했다. 특히 홈에서 강했다. 광주축구전용구장 개장 첫 승을 인천전에서 거두는 등 안방에서 2승 1무, 무패 중이다.

또 지난해에는 FA컵 3라운드 원정경기에서 6-1 대승을 거두는 등 자신감이 넘친다.

광주는 적극적인 압박으로 신진호, 이명주에서 시작되는 패스를 차단해 중원을 장악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리고 엄지성, 산드로, 아사니 등 빠르고 날카로운 공격으로 득점을 만들어내겠다는 계산이다.

'악바리' 광주가 인천과의 좋은 기억을 살려 이번 시즌에 성공할 지 주목된다.



광주FC가 18일 인천유나이티드를 상대로 안방 첫승을 노린다. 사진은 퇴장 징계에서 돌아와 공격 전면에 서게 될 엄지성. <광주FC 제공>

광주체육중 레슬링, 전국대회 최강팀 '우뚛'

회장기대회 금 3·은 1·동 1

광주체육중 레슬링팀이 전국대회에서 중학부 최강팀으로 우뚛섰다.

16일 광주시교육청에 따르면 체육중 레슬링팀이 강원도 철원에서 막을 내린 '제33회 회장기 전국 중학교 레슬링대회'에서 금메달 3개, 은메달 1개, 동메달 1개를 따냈다.

김성수(2년)는 남중부 중학부 그레코로만형 51kg급 준결승에서 상대를 8-0 테크니컬 폴승으로 제압하고 결승에 올랐다. 이어진 결승전에서도 옆굴리기 기술로 4-3 판정승을 거뒀다.

배지성(3년)은 남중부 자유형 80kg급 준결승에서 10-0 테크니컬 폴승, 결승에서 강원체육중에 0대 8로 끌려갔지만 경기 종료를 앞두고 그라운드넬스 동작으로 역전 폴승을 거뒀다. 배지성은 그레코로만형 80kg급에서도 동메달을 추가했다.

김고운빛(3년)은 여중부 57kg급에 출전해 결승전에서 경북체육중에 10-0 테크니컬 폴승을 거두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송호진(3년)은 남중부 자유형 55kg에서 은메달을 따냈다.



회장기 전국 중학교 레슬링대회에서 메달을 따낸 광주체육중 선수들. 송호진(왼쪽부터)·김고운빛·김성수·배지성. <광주시교육청 제공>

우즈, 마스터스 출전하나

다음달 7일 개막 앞두고 오거스타서 연습 라운드

타이거 우즈(미국·시진)가 다음달 7일(한국시간) 개막하는 시즌 첫 번째 메이저대회 마스터스 출전의 기대감을 한껏 끌어 올렸다.

우즈는 지난 10일 마스터스가 열리는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을 찾아 라운드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가 16일 보도했다.

지난 10일은 미국프로골프(PGA) 투어 최다 상금이 걸린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1라운드가 열린 날이다.

우즈는 애초 플레이어스 챔피언십 출전자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가 출전 선수가 확정되는 날 출전하지 않겠다고 통보한 바 있다.

출전 포기 이유를 밝히지 않았는데, 전문가들은 체력과 경기력을 마스터스에 초점을 맞추려는 것

이라고 해석했다.

플레이어스 챔피언십에 출전하지 않고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연습 라운드를 했다는 사실은 그만큼 우즈가 마스터스 출전 의지가 강하다는 뜻으로 읽힌다.

우즈는 마스터스에서 5차례 우승했다. 15개 메이저대회 트로피 가운데 첫 번째와 15번째를 마스터스에서 품에 안았다.

우즈는 지난달 20일 끝난 제네시스 인비테이셔널에 출전해 10개월 만에 72홀을 걸어서 경기하면서 재기를 알렸다.

한편 로리 매길로이(북아일랜드)는 지난 13일 오거스타 내셔널 골프클럽에서 연습 라운드를 했다.



LOTTE CINEMA | 증장로관

즐거움
문화
산책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 2관 소울메이트, 플레인
- 3관 사슴 신들의 분노
- 4관 스즈메의 문단속
- 5관 소울메이트
- 6관 사슴 신들의 분노, 이니세린의 밴시
- 9관 더 퍼스트 슬램덩크

7관 씨네커플 대외비, 서치 2, 엔트맨과 와스프: 퀴텀메이아

8관 씨네커플 플레인, 멍둥이, 카운트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3-01(수) ~ 2023-03-31(금)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용콘서트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